

## 한국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동향

- 2001~2010년까지 학회지를 중심으로 -

최 해 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A Survey on the Research Trends of Clothing Construction in Korea

- Focused on Journal Publications from 2001 through 2010 -

Hae-Joo Choi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College of Arts, Hansung University

(투고일: 2012. 12. 18, 심사(수정)일: 2013. 3. 14, 게재확정일: 2013. 3. 28)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of subject matter in clothing construction field in clothing and textiles and to suggest the information for the future directions for fashion business and research. 2737 articles with clothing and textiles subject matter, 350 articles with clothing construction fiel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from 2001 through 2010 were analyzed.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Clothing construction field took 12.8% with 350 articles in the researches of the Journal Publications in 2000s. 2. Clothing construction field showed more proportions in the latter half of the decade. 3. Clothing construction field were classified into 5 topics : topic of basic pattern and pattern for apparel, topic of body types, topic of functionality of clothing and protective clothing, topic of size system of apparel, topic of sewing and manufacturing process. 4. In clothing construction field, topic of basic pattern and pattern for apparel took the most proportions. 5. Topic of body types, topic of functionality of clothing and protective clothing, topic of size system of apparel, topic of sewing and manufacturing process were followed.

Key words: clothing construction field(의복구성학),  
basic pattern and pattern for apparel(의복원형 및 패턴), body types(체형),  
functionality of clothing and protective clothing(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size system of apparel(의복치수체계),  
sewing and manufacturing process(봉제 및 생산공정)

## I. 서론

의복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인체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신분상징 등의 사회적 표현 도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학문인 의류학은 패션디자인·미학, 의복구성학, 복식사, 패션마케팅, 피복과학 등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의 복합적인 분야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실용학문인 의류학의 발전은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섬유·패션산업은 국내 산업 중 수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sup>1)</sup>,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력 기간산업이다.<sup>2)</sup>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과 함께 의류학도 많은 발전을 하였다. 관련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시대적 요구 및 발전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학술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류학 관련 학술지는 숫자도 증가하였고, 논문의 양과 질적 수준도 향상되었다. 또한 한국 패션산업이 글로벌화되고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화되고 개성화되고 세분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패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인 의류학 분야의 심도있는 연구와 실력있는 전문인의 육성이 요구된다.

의류학 분야의 연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방향을 확인하고 패션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의류학의 연구방향과 패션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의류학 분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류학 연구 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의류학 전반을 대상으로 여러 학회지를 분석한 연구, 동일 학회지를 창간호부터 분석한 연구, 연구 영역별로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정찬진 외<sup>3)</sup>는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에 창간호부터 1990년까지 게재된 의류학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의류학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였고, 김정호<sup>4)</sup>는 「복식」,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의류학 연구분야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나수임 외<sup>5)</sup>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의류학의 연구 경향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동일 학회지를 창간호부터 분석한 연구로는 성화경 외<sup>6)</sup>가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 1977년부터 1992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 저자, 참고문헌 등을 분석하였고, 이미숙<sup>7)</sup>이 「복식」을 대상으로 1977년부터 2001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분야, 연구방법, 저자, 참고문헌수 등을 분석하였다.

의류학의 연구분야별로 고찰한 연구로는 김미자<sup>8)</sup>가 한국복식분야를, 김효숙<sup>9)</sup>, 이정순 외<sup>10)</sup>가 의복구성분야를, 이해영, 이인자<sup>11)</sup>가 복식사회·심리학분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은숙, 박재옥<sup>12)</sup>이 복식사와 디자인 및 미학분야를, 이유리, 이미영<sup>13)</sup>이 패션마케팅분야를, 최혜주<sup>14)</sup>가 패션디자인·미학분야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분야별 고찰의 경우 학회지 이외의 석·박사논문 등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대한가정학회지」,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복식문화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여 1959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 논문을 기간별, 학회지별, 분야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의류학 분야 중에서 의복구성학은 인체에 기능적이며 미적으로 적합한 의복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한 연구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깊이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는 1970년대에 기성복이 도입되고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대량생산에 필요한 원형제작과 치수체계 설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의류생산업체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CAD를 활용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고, 1990년대 이후 보다 세분화된 의복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어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가 점차 보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패션산업에서 요구되는 관련 분야의 연구방향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의복 생산과 관련이 깊은 의복구성학 분야 연구가 2000년대에 어떠한 연구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의 의류학 분야 중 합리적인 의복설계와 제작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패션산업의 생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류학 분야 중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의복설계와 제작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패션산업이 기능적이고 미적인 고부가가치가 있는 의류제품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국내 의류학 전문 학술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인 「복식」과 「한국의류학회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복식」은 1975년에 설립된 한국복식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복식 전공분야의 대표적인 전문학술지이다. 「한국의류학회지」는 1976년에 설립된 한국의류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복식」과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복식」의 총 90호에 게재된 1089편의 논문과 「한국의류학회지」의 총 109호에 게재된 1648편의 논문, 두 학회지의 총 2737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의류학 및 의복구성학 연구분야의 분류체계

의류학 연구현황을 다룬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학술대회의 연구분야를 참조하여 의류학 연구분야를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분류한 의류학의 연구분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연구자에 따라 의류학의 연구분야를 기타분야를 포함하여 7~10분야로 분류하였다.

의류학의 연구분야로 복식의장학, 복식미학/디자인, 복식사, 한국복식사, 서양복식사, 복식문화, 의복구성, 의복구성학, 의류상품, 의류상품학, 패션마케팅, 의상사회심리, 의상사회심리학, 의복사회심리, 복식사회심리, 피복과학, 의복과학, 피복재료, 피복위생, 기타의 분야명칭이 사용되었다.

최근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분류하는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한국복식학회의 경우, 복식사, 복식미학·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심리, 의복구성·텍스타일·

<표 1> 의류학의 연구분야의 분류체계

연구자	년도	분석기간	논문수	검토학회지	연구분야
정찬진 외	1991	1959~1990	62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피복과학, 복식사, 의상사회심리, 의복구성, 의류상품, 복식의장학, 기타
성화경 외	1994	1977~1992	383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사회심리, 피복재료, 의복구성학, 피복정리, 피복위생, 의류상품학, 한국복식사, 복식의장학, 서양복식사, 기타
김정호	1999	1990~1998	1131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사, 의복과학, 복식의장학, 의복사회심리, 의류상품학, 의복구성학
나수임 외	2000	1991~1999	1690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복식의장학, 의류상품학, 피복과학, 의복구성학, 복식사, 복식문화, 의상사회심리학, 기타
이미숙	2002	1977~2001	892	복식	복식사, 복식미학/디자인, 패션마케팅, 의복구성학, 의상사회심리, 피복과학, 기타
최해주	2013	2001~2010	2737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패션디자인·미학, 패션마케팅, 피복과학, 의복구성학, 복식사회심리, 복식사, 기타

〈표 2〉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범위

연구자	발표년도	분석기간	연구범위
정찬진 외	1991	1959~1990	의복의 기능성, 의복의 치수설정, 원형제작, 체형연구, 봉제기술 및 기타
김효숙	1991	1961~1990	체형 연구, 원형 연구, 의복의 치수설정과 등급법, 동작에 따른 기능성, 특수복 및 기능복, 봉제방법 및 기타
김정호	1999	1990~1998	원형제작, 체형연구, 의복의 기능성, 표준치수
나수입 외	2000	1991~1999	의복의 기능성, 의복의 치수설정, 원형제작, 체형연구, 봉제, 기타
이정순 외	2001	1959~1999	디자인관련 의복구성, 체형, 의복원형 및 패턴연구, 의류치수, 의복의 맞춤새, 특수복 및 기능복, 봉제, 기타
최해주	2013	2001~2010	의복원형 및 패턴, 의복치수체계, 체형, 의복 기능성 및 특수복, 봉제 및 생산공정

복식 일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류학회의 경우 패션마케팅, 의복구성, 피복과학, 복식미학·디자인, 한국복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류기준과 학술대회 연구분야를 참조하여 연구분야를 분류 선정하였다. 연구분야 명칭은 유사분야의 경우 보다 최근에 사용 추세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 결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명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 연구분야를 패션디자인·미학, 패션마케팅, 피복과학, 의복구성학, 복식사회심리, 복식사, 기타로 분류하였다(표 1).

의복구성학의 연구주제 및 연구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범위를 참조하고, 본 연구의 논문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선정하였다. 의복구성학 관련분야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 범위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구성학의 연구주제를 의복원형 및 패턴, 의복치수체계, 체형, 의복 기능성 및 특수복, 봉제 및 생산공정으로 분류하였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년도별, 연구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의복구성학 분야를 연구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분포도와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원형차트와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 Ⅲ. 의복구성학의 연구 동향

### 1. 학회지별 분야별 연구현황

#### 1) 년도별 발행현황

「복식」과 「한국의류학회지」의 년도별 발행현황은 〈표 3〉과 같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발간된 「복식」의 논문 편수는 총 90호에 1089편이며, 「한국의류학회지」의 논문 편수는 총 109호에 1684편으로 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는 총 2737편이었다.

「복식」은 전반기에는 2001년에 95편으로 가장 적게 게재되었고, 2002년에 99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후반기에는 2006년부터 게재율이 급증하였으나 2010년에 106편으로 가장 적게 게재되었으며, 2007년에 13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2000년대 10년간 기간 중에 2001년에 가장 게재율이 낮았으며, 2007년 최대 게재율을 보인 후 2008년부터 게재율이 저하되었다.

「한국의류학회지」는 전반기에는 2003년에 143편으로 가장 적게 게재되었고, 2002년에 165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후반기에는 2006년부터 게재율이 급증하였으나 2007년에 166편으로 가장 적게 게재되었으며, 2008년에 181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2000년대 10년 기간 중에 2003년에 가장 게재율이 낮았으며, 2008년에 최대 게재율을 보인 후 2009년부터 게재율이 저하되었다.

두 학회지의 게재 논문 편수를 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2003년에 239편으로 가장 적게 계

〈표 3〉 학회지별 년도별 논문 발행 현황

(단위 : 편)

학회지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복식	95	99	96	96	96	120	134	127	120	106	1089
한국의류학회지	155	165	143	159	154	172	166	181	180	173	1648
합계	250	264	239	255	250	292	300	308	300	279	2737

〈표 4〉 학회지별 의류학 연구분야 분포 (2001~2010)

(단위: 편(%))

학회지 \ 연구분야	패션디자인 · 미학	패션마케팅	피복과학	의복구성학	복식사회 심리	복식사	기타	합계
복식	523 (48.0/19.1)	119 (10.9/4.3)	52 (4.8/1.9)	77 (7.1/2.8)	80 (7.3/2.9)	218 (20.0/8.0)	20 (1.8/0.7)	1089 (100/39.8)
한국의류학회지	240 (14.6/8.8)	479 (29.0/17.5)	346 (21.0/12.6)	273 (16.6/10.0)	227 (13.8/8.3)	52 (3.2/1.9)	31 (1.9/1.1)	1648 (100/60.2)
합계	763 (27.9)	598 (21.8)	398 (14.5)	350 (12.8)	307 (11.2)	270 (9.9)	51 (1.9)	2737 (100)

- 백분율: 학회지별 백분율 / 전체 학회지에 대한 백분율

재되었고, 2002년에 26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2006년에 게재율이 급증하였으며 후반기에는 2010년에 279편으로 가장 적게 게재되었으며, 2008년에 308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2000년대 10년 기간 중에 2003년에 게재율이 가장 낮았으며, 2008년에 최대 게재율을 보인 후 2009년부터 게재율이 저하되었다.

종합하면, 두 학회지 모두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2006년에 두 학회지 모두 게재율이 급증하였고 2007년과 2008년을 고비로 하여 게재율이 점차로 저하되었다. 이러한 논문 발행 현황은 각 대학의 연구 업적 평가와 학술지 평가의 등급제 적용 등의 외적인 요인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학진 등재지에 대한 차등 평가 적용으로 등재지의 숫자가 적었던 시기에 집중적인 게재 증가 현상을 보이다가 점차 후발 학회지의 등재지 평가가 증가됨에 따라 두 학회지의 게재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복식」에 창간호(1977년)부터 2000년까지 게재된 논문이 총 797편이고, 「한국의류학회지」 창간호(1977년)부터 2000년까지 게재된 논문이 총 1,158편으로 두 학회지에서 창간호(1977년)부터 2000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1,955편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두 학회지에서 발행한 논문 편수가 총 2737편이므로 1977년부터 2000년까지 24년간 게재된 논문 편수인 1,955편과 비교할 때 2000년대 10년간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의류학의 연구분야별 분포 및 변화 추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복식」,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한 의류학 연구분야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5〉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년도별 분포이며, 〈그림 1〉은 〈표 4〉에 나타난 연구분야별로 10년간 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 연구분야별 분포도를 원형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의류학 연구분야의 년도별 변화추이는 〈그림 2〉의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2000년대 10년간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분야는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이며 총 763편으로 27.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패션마케팅분야로 총 598편 21.8%이며, 피복과학분야가 398편 14.5%, 의복구성학분야가 350편 12.8%, 복식사회심리분야가 307편 11.2%, 복식사분야가 270편 9.9%, 기타분야가 51편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학회지별 의류학 연구분야의 연도별 분포

(단위: 편)

연도	학회지	연구분야							
		패션디자인 · 미학	패션마케팅	피복과학	의복구성학	복식사회 심리	복식사	기타	합계
2001	복식	31	15	4	9	15	19	2	95
	의류	16	41	43	28	13	12	2	155
	합계	47	56	47	37	28	31	4	250
2002	복식	41	15	2	7	8	21	5	99
	의류	23	39	35	30	27	9	2	165
	합계	64	54	37	37	35	30	7	264
2003	복식	37	12	5	2	11	29	0	96
	의류	18	48	35	29	27	3	4	164
	합계	55	60	40	31	38	32	4	260
2004	복식	47	10	2	4	16	16	1	96
	의류	19	47	41	26	21	2	3	159
	합계	66	57	43	30	37	18	4	255
2005	복식	45	11	8	3	7	21	1	96
	의류	24	37	37	24	26	2	4	154
	합계	69	48	45	27	33	23	5	760
2006	복식	65	11	6	13	4	19	2	120
	의류	27	45	32	24	34	6	4	172
	합계	92	56	38	37	38	25	6	292
2007	복식	73	11	10	8	6	23	3	134
	의류	24	74	33	25	6	3	1	166
	합계	97	85	43	33	12	26	4	300
2008	복식	59	11	12	13	6	23	3	127
	의류	28	42	28	32	41	6	4	181
	합계	87	53	40	45	47	29	7	308
2009	복식	63	13	1	14	3	25	1	120
	의류	38	49	33	26	25	6	3	180
	합계	101	62	34	40	28	31	4	300
2010	복식	62	10	2	4	4	22	2	106
	의류	23	57	29	29	28	3	4	173
	합계	85	67	31	33	32	25	6	279
합계	복식	523	119	52	77	80	218	20	1,089
	의류	240	479	346	273	227	52	31	1,648
	합계	763	593	398	350	313	269	51	2,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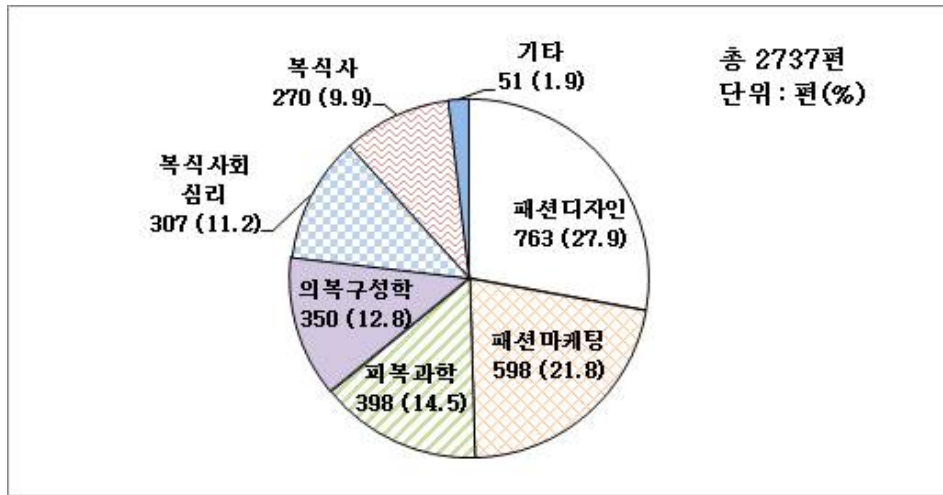
\* 의류: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의 경우 패션디자인·미학분야가 가장 게재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복식사분야, 패션마케팅분야, 복식사회심리분야, 의복구성학분야, 피복과학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패션마케팅분야, 피복과학분야, 의복구성학분야, 패션디자인·미학분야, 복식사회심리분야, 복식사의 순으로 게재율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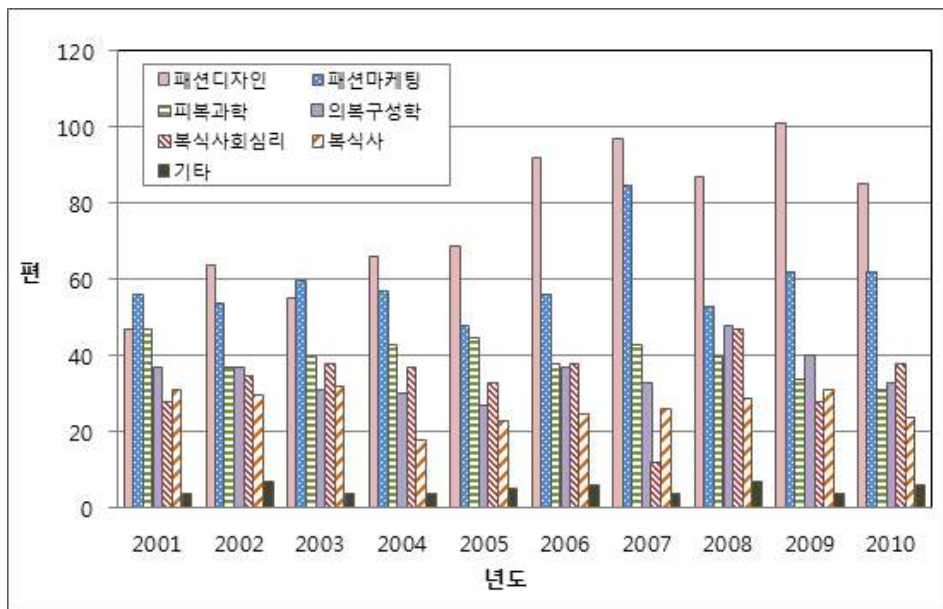
패션디자인·미학분야는 전체 연구의 27.9%로 1/3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복식」의 경우

523편 48.0%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240편 14.6%로 대체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학회지 간의 투고 성향의 차이를 보여주며, 「복식」이 패션디자인 관련 대표적인 학술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패션디자인·미학분야는 1980년대까지는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서 대체로 낮은 연구경향을 나타내었다.<sup>15)</sup> 1990년대 들어서 급



〈그림 1〉 의류학 연구분야별 분포도 (2001-2010)



〈그림 2〉 의류학 연구분야 년도별 추이

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 후반기에 근소한 차이로 1위의 연구경향을 나타내었다.<sup>16)</sup>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10년간에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게재율을 나타내어 1980년대와 1990년대보다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으로 창

의적인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패션마케팅분야는 전체 연구의 21.8%를 차지하였는데, 「복식」의 경우 119편 10.9%로 비교적 낮은 게재율을 나타낸 반면 「한국의류학회지」에서는 479편 29.0%로 1/3에 가까운 높은 게재율을 나타냄으로써

「한국의류학회지」에서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패션마케팅분야는 타 학술지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sup>18)</sup>

피복과학분야는 14.5%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복식」의 경우 52편 4.8%로 의류학의 6 연구분야 중에서 가장 연구 비중이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류학회지」에서는 346편 21.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학회간의 성향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의 경우 피복과학분야는 1980년대까지 전체 연구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sup>19)</sup> 「복식」의 경우에는 대조적으로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었다.<sup>20)</sup>

의복구성학분야는 12.8%로 네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2005년에 27편으로 가장 낮은 게재율을 보였고 2008년에 45편으로 가장 높은 게재율을 나타내었다. 「복식」의 경우 77편 7.1%로 낮은 게재율을 나타내었고,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273편 16.6%로 세 번째로 높은 게재율을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패션디자인·미학분야보다 높은 게재율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복구성학분야는 1960년대에 강한 연구추세를 보였으나 1970년 이후에는 연구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연구의 강세가 약화되었다.<sup>21)</sup> 「복식」의 경우 1980년대보다 1990년대에 연구비율이 높으며,<sup>22)</sup> 2000년대에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연구비중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 연구 비율이 낮은 편이다. 1959년부터 1990년까지를 대상으로한 연구에 의하면 의복구성학의 비율이 12.7%를 차지하였다.<sup>23)</sup>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복식」과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11.0%를 차지하였고<sup>24)</sup> 1991년부터 1999년까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14.4%를 차지하였다.<sup>25)</sup> 본 연구의 2000년대 분석 결과인 12.8%와 1960~1980년대, 1990년대의 게재율을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시대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복식사회심리분야는 11.2%를 나타내었는데, 「복식」의 경우 80편 7.3%,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227편 13.8%를 나타내어 두 학회지 모두에서 대체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sup>26)</sup>

복식사분야는 9.9%로 6가지 분야 중에서 연구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복식」의 경우 218편 20.0%로 두 번째로 연구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51편 3.2%로 가장 게재율이 낮게 나타나 대조적인 게재 상황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복식」의 경우 1990년대 전반기까지 복식사분야의 연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까지의 게재율과 비교하면 1990년대 들어와서 게재율이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sup>27)</sup>

종합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연구분야별 연구추세는 패션디자인·미학분야는 점차 게재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패션마케팅분야는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피복과학분야는 현재 세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게재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의복구성학분야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지만 후반기에 약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복식사회심리분야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사한 게재율을 보여주며, 복식사분야는 현재 가장 낮은 게재율을 나타내며 후반기에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 2.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 주제별 동향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복식」,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주제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7>은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주제의 년도별 분포이며, <그림 3>은 <표 7>에 제시한 연구주제별로 10년간 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편수의 합계를 기준으로한 연구주제별 분포도를 원형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의 막대그래프는 의복구성학의 연구주제별로 년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의복구성학분야의 연구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구주제는 의복원형 및 패턴이며, 의복구성학



<표 6> 학회지별 의복구성학 분야 연구주제 분포 (2001~2010)

(단위: 편(%))

연구주제 학회지	의복원형 및 패턴	체형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의복치수 체계	봉제 및 생산공정	합계
복식	27 (35.1/7.7)	13 (16.9/3.7)	16 (20.8/4.6)	14 (18.2/4.0)	7 (9.1/2.0)	77 (100/22.0)
한국의류학회지	77 (28.2/22.0)	70 (25.6/20.0)	65 (23.8/18.6)	54 (19.8/15.4)	7 (2.6/2.0)	273 (100/78.0)
합계	104(29.7)	83(23.7)	81(23.1)	68(19.4)	14(4.0)	35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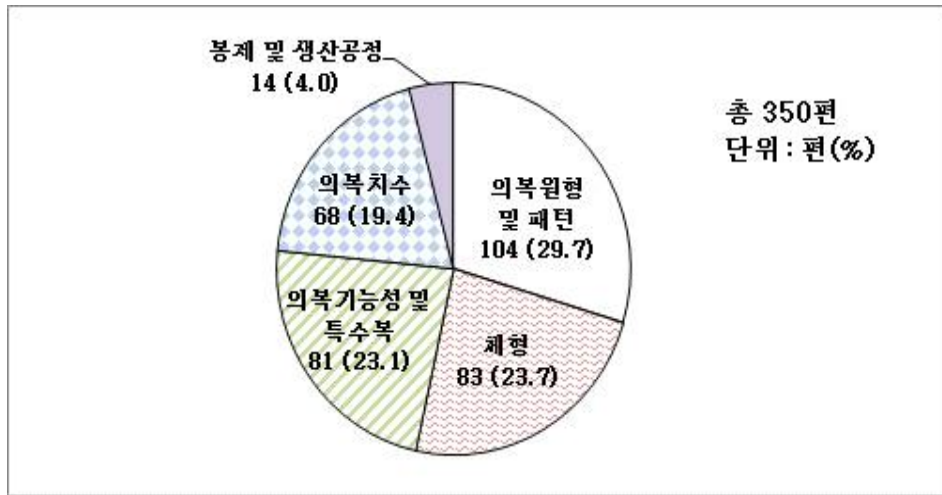
백분율: 학회지별 백분율 / 전체 학회지에 대한 백분율

<표 7> 학회지별 의복구성학 분야 연구주제의 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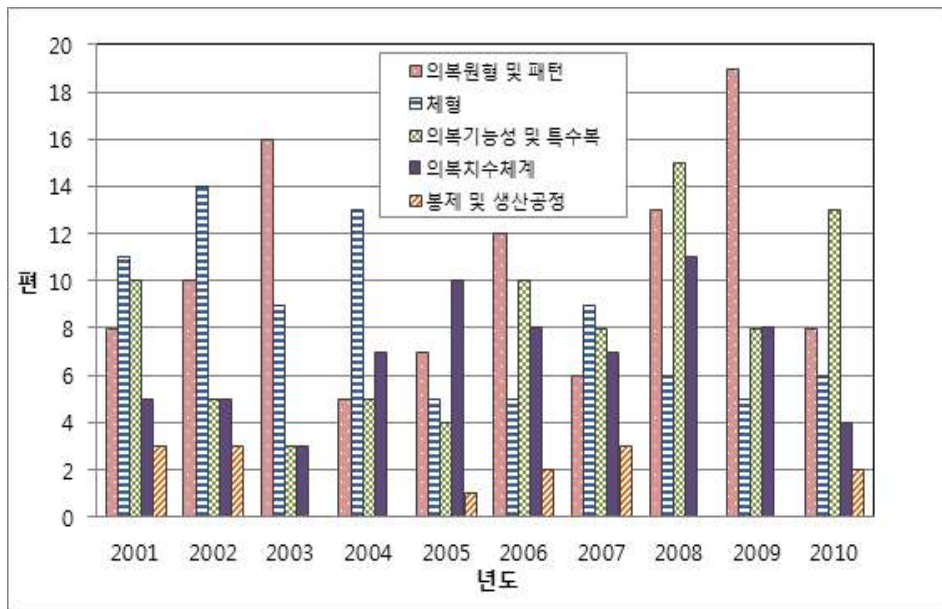
(단위: 편(%))

연도	연구주제 학회지	의복원형 및 패턴	체형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의복치수 체계	봉제 및 생산공정	합계
2001	복식	1	3	3	1	1	9
	의류	7	8	7	4	2	28
	합계	8	11	10	5	3	37
2002	복식	2	3	1	0	1	7
	의류	8	11	4	5	2	30
	합계	10	14	5	5	3	37
2003	복식	1	1	0	0	0	2
	의류	15	8	3	3	0	29
	합계	16	9	3	3	0	31
2004	복식	1	1	0	2	0	4
	의류	4	12	5	5	0	26
	합계	5	13	5	7	0	30
2005	복식	1	1	0	1	0	3
	의류	6	4	4	9	1	24
	합계	7	5	4	10	1	27
2006	복식	6	1	2	3	1	13
	의류	6	4	8	5	1	24
	합계	12	5	10	8	2	37
2007	복식	2	2	1	1	2	8
	의류	4	7	7	6	1	25
	합계	6	9	8	7	3	33
2008	복식	4	0	6	3	0	13
	의류	9	6	9	8	0	32
	합계	13	6	15	11	0	45
2009	복식	9	1	2	2	0	14
	의류	10	4	6	6	0	26
	합계	19	5	8	8	0	40
2010	복식	0	0	1	1	2	4
	의류	8	6	12	3	0	29
	합계	8	6	13	4	2	33
합계	복식	27	13	16	14	7	77
	의류	77	70	65	54	7	273
	합계	104	83	81	68	14	350

\* 의류: 「한국의류학회지」



〈그림 3〉 의복구성학 분야 연구주제 분포도 (2001-2010)



〈그림 4〉 의복구성학 분야 연구주제의 년도별 추이

분야 전체 350편의 논문 중 104편으로 29.7%를 차지하여 약 1/3의 게재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된 연구주제는 체형으로 83편 23.7%를 차지하였으며,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이 81편 23.1%, 의복치수체계가 68편 19.4%, 봉

제 및 생산공정이 14편 4.0%의 순이었다.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연구주제의 비율이 두 학회지를 합하여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의복원형 및 패턴, 체형,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의복 치수체계, 봉제 및 생산공정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복식」의 경

우 의복원형 및 패턴 연구주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의복치수체계, 체형, 봉제 및 생산공정의 순으로 나타나 두 학회지간에 차이를 보였다.

의복원형 및 패턴 연구주제는 전체 의복구성학 분야 중 29.4%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복식」의 경우 27편 35.1%,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77편 28.2%로 두 학회지를 합한 경우와 「복식」과 「한국의류학회지」 각각의 경우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주제 중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연구주제로 파악되었다.

의복원형 및 패턴 연구주제는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 19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복식」의 경우에는 2009년에 9편,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에는 2003년에 15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원형에 관한 연구주제는 1990년대 이전(원형제작)<sup>28)</sup>과 1990년대(원형)<sup>29)</sup>에는 첫 번째와 큰 차이가 없는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연구 주제였다.

체형 연구주제는 전체 의복 구성학 분야 중 23.7%를 차지하였는데, 「복식」의 경우 13편 16.9%로 높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한국의류학회지」에서는 70편으로 25.6%를 차지하였다. 체형 연구주제는 2000년대 후반기보다 전반기에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2002년과 2004년에 14편, 13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후반기로 갈수록 연구가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복식」의 경우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편,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2002년, 2003년에 11편, 12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체형 연구주제는 1990년대 이전에는 연구가 저조하여 순위가 낮았으며<sup>30)</sup> 1990년대에는 가장 연구비중이 높은 연구주제였다.<sup>31)</sup>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연구주제는 23.1%를 차지하였는데, 체형 연구주제 23.7%와 논문 2편의 차이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08년에 15편, 2010년에 13편이 발표되었으며,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체형 연구주제와 반대의 연구경향을 나타내었다. 「복식」의 경우 16편 20.8%,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65편 23.8%로 「한국의류학회지」의 게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복식」의 경우 2008년에 6편,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2010년에 12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이전에 의복의 기능성 연구주제가 근소한 차이로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sup>32)</sup>, 1990년대에는 체형, 원형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sup>33)</sup>

의복치수체계 연구주제는 19.4%를 차지하였는데,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8년에 가장 많은 게재율을 보였는데 11편이 발표되었다. 「복식」은 2008년에 3편으로, 「한국의류학회지」는 2005년에 9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1990년대 이전에는 세 번째 순위였는데<sup>34)</sup> 1990년대에는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 순위를 나타내어 1990년대 이후로 연구의 비중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봉제 및 생산공정 연구주제는 4.0%로 다른 연구 주제와 비교할 때 연구가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의 경우 7편 9.1%,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7편 2.6%를 나타내어, 동일한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한국의류학회지」에서의 비중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200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유사한 낮은 게재율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봉제관련 연구주제의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1990년대의 경우에는 치수설정관련 연구주제의 논문편수와 1편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거의 동일한 연구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종합해보면, 의복구성학 분야는 2000년대 전반기에 162편, 후반기에 18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연구 논문편수가 증가하였다.

의복원형 및 패턴,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의복치수체계의 연구주제는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발표된 논문편수가 더 증가하였으나 체형 연구주제는 관련 논문이 후반기에 더 저조하게 발표되었다.

의복원형 및 패턴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9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년도별 발표 비율로는 거의

반을 차지하였다.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연구주제는 2008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의복구성학 분야의 1/3을 차지하였다. 의복치수체계 연구주제는 2008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년도별 발표비율로는 2005년에 1/3 이상의 게재율을 나타내었다. 체형 연구주제는 두 번째로 게재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연구비중이 저조하였다. 봉제 및 원단공정 연구주제는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가장 연구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동작적응성 등과 관련된 의복기능성과 원형제작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치수설정 연구주제의 순이었으며 체형관련 주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체형관련 주제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이 원형연구였으며 치수설정관련 연구주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까지 의복원형 및 패턴에 관한 연구주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비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체형관련 연구주제는 년대에 따라 연구비중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과 의복치수체계에 관한 연구주제도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년대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패션산업의 특성과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연구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구가 저조해진 의복치수체계 연구주제 등도 변화하는 패션산업의 생산체제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와 적용이 필요하므로 연구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IV. 결론

의복구성학분야는 의류학 연구분야 중 의복설계와 제작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분야로 다양한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복식」과 「한국 의류학회지」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273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의류학의 연구분야를 분석하고 의복구성학분야의 세부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의복구성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의류학 연구는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8년에 최대 게재율을 보였고, 2009년부터 게재율이 저하되었다.
2. 2000년대에 가장 많은 연구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분야는 패션디자인·미학 분야로 763편 27.9%를 나타내며, 의복구성학은 350편 12.8%를 차지하였고 후반기에 증가 추세를 보였다.
3. 의복구성학 분야를 세분화하면, 의복원형 및 패턴, 체형,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의복치수체계, 봉제 및 생산공정 등으로 연구주제를 분류할 수 있다.
4. 의복원형 및 패턴 연구주제가 104편 2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체형,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 의복치수체계 등의 순이었다.
5.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의복원형 및 패턴 연구주제는 대체로 연구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체형 연구주제는 년대에 따라 게재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의복기능성 및 특수복과 의복치수체계 연구주제도 년대에 따라 연구비중에 변화가 나타났다.

패션산업 현황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주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가 저조해진 의복치수체계 등의 연구주제도 변화하는 패션산업의 생산체제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결과가 적용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속적인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韓 섬유수출 점유율 순위 하락세”, 자료검색일 2012. 2.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446151> “10대 수출상품 변화추이”, 자료검색일 2012. 2. 21, <http://blog.naver.com/dstar4/120055209960>
- 2) “한국 섬유산업연합회 김동수 부회장 - 국내 섬유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 자료검색일 2012. 2. 15, <http://kr.avingnews.com/news/view.php?articleId=207211>
- 3) 정찬진 외 (1991),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제고

- 명: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1), pp. 28-37.
- 4) 김정호 (1990), 90년대(1990~1998) 한국의류학 연구의 현황 - 한국의류학회지와 한국복식학회지를 중심으로-, *복식*, 46, pp. 133-142.
  - 5) 나수임 외 (2000), 한국 의류학의 연구경향분석(1991-1999), *복식문화연구*, 8(6), pp. 853-863.
  - 6) 유혜경 외 (1994),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8(5), pp. 692-703.
  - 7) 이미숙 (2002), 한국복식학회지 '복식'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 분석-장간호(1997)부터 51권 8호(2001)까지, *복식*, 52(4), pp. 97-109.
  - 8) 김미자 (1990), 한국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1958~1989), *복식*, 15, pp. 55-61.
  - 9) 김효숙 (1991), 의복구성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현황 및 재조명, *생활문화·예술논집*, 14, pp. 103-114.
  - 10) 이정순 외 (2001), 의복구성학의 연구주제 및 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9(2), pp. 175-187.
  - 11) 이영혜, 이인자 (1996), 복식사회·심리학분야의 연구경향분석 I (1974~1994), *복식*, 30, pp. 19-40.
  - 12) 은숙, 박재옥 (2006),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복식사와 디자인 및 미학분야에 관한 논문 분석: 1990~2004, *한국의류학회지*, 30(3), pp. 369-377.
  - 13) 이유리, 이미영 (2007), 패션마케팅 분야의 4년제 대학교육 과정과 「복식」지 연구동향 비교, *복식*, 57(5), pp. 123-139.
  - 14) 최해주 (2012), 한국 패션디자인·미학 분야의 연구동향, *복식*, 62(3), pp. 152-162.
  - 15) 정찬진 외, *op. cit.*, p. 36.
  - 16) 이미숙, *op. cit.*, p. 101.
  - 17) 나수임 외, *op. cit.*, pp. 69-70.
  - 18) 이유리, 이미영, *op. cit.*, p. 133.
  - 19) 정찬진 외, *op. cit.*, p. 35.
  - 20) 이미숙, *op. cit.*, p. 101.
  - 21) 정찬진 외, *op. cit.*, p. 35.
  - 22) 이미숙, *op. cit.*, p. 101.
  - 23) 정찬진 외, *op. cit.*, p. 33.
  - 24) 김정호, *op. cit.*, p. 140.
  - 25) 나수임 외, *op. cit.*, p. 69.
  - 26) *Ibid.*, p. 72.
  - 27) 이미숙, *op. cit.*, p. 101.
  - 28) 정찬진 외, *op. cit.*, pp. 34-35.
  - 29) 나수임 외, *op. cit.*, pp. 70-71.
  - 30) 정찬진 외, *op. cit.*, pp. 34-35.
  - 31) 나수임 외, *op. cit.*, pp. 70-71.
  - 32) 정찬진 외, *op. cit.*, p. 34.
  - 33) 나수임 외, *op. cit.*, pp. 70-71.
  - 34) 정찬진 외, *op. cit.*, p. 34.
  - 35) 나수임 외, *op. cit.*, pp. 70-71.